

국민-바른 통합신당 지지율 16.4%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지지율이 여야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넘어 2위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24일 낮 12시30분께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정당 통합 인식조사' 결과 통합신당 지지율은 16.4%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국민의당 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공개 통합신당 지지율 16.4%...민주당 이어 2위 反통합과 개혁신당은 지지율 3.2% 수준

합한 것보다 4.1%p 높은 수치다.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체제에서의 지지율과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 정의당 체제에서의 지지율 등을 묻는 방식으

로 진행했다. 이 결과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기존 5당 체제에서 45.0%를 기록하다 통합신당과의 지지율 조사를 시 39.5%까지 하락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기존 13.5%, 통합신당 포함 시 13.0%로 나타났다.

로 진행했다.

이 결과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기존 5당 체제에서 45.0%를 기록하다 통합신당과의 지지율 조사를 시 39.5%까지 하락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기존 13.5%, 통합신당 포함 시 13.0%로 나타났다.

국민정책연구원은 이에 "민주당 이탈층은 통합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신당이 출현할 경우 이 정당의 지지율은 3.2%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고 양당 통합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통합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6% 가까이 하락한 것은 견고하다고 평가되는 여권 지지층이 통합신당으로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신당은 국민의당 창당에 큰 역할을 했던 호남지역에서 15.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6.5% 가량 높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2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무선 혼용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19.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뉴스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정례 회의에 참석한 조배숙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환, 김중희 의원, 조 위원장, 박주현, 유성열 의원.

국민의당 反통합과 신당 '민주평화당'으로 결정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의 당명이 '민주평화당'으로 정해졌다.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 측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창추위 공동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명은 민주평화당이 다. 약칭 민평당"이라며 "민평당은 민생 제일주의,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그러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의지와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실현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의지 등 당이 나아갈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창추위는 앞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달 26일까지 당명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는 26일 예정된 개혁신당 창당 전담 결의대회부터 신당 당명을 사용토록 하자는 내부 제안에 따라 서둘러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SNS를 통해 120명이 80개 당명을 제안했고 이 중에는 민생평화당, 민생중심당 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평당의 상징색과 관련해 최 의원은 "다당제 하에 여러 색깔이 이미 쓰이고 있어서 두 가지로 논의했다. 녹색 계통과 노란색 계열 두 종류로 오늘부터 SNS를 통해 당원의 의견, 일반 국민은 어떤 색을 선호하는지 듣고 내일 전담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스티커를 붙이게 해보려한다"며 "26일 오전 당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대통령과 아이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미술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뉴스스

유승민 "한국당 문 닫도록 대구시장 선거에 최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대구시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한국당을 넘어섰다고 평가할만한 신호가 뭘냐는 질문에 "대구시장에 한국당이 당선 안되면 문을 닫겠다고 했으면 대구시장 선거에 총력을 다해보겠다"며 "한국당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대구시장 선거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영남 보수가 한국당이 과연 자기들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대표하는 정치세력이나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 총선에서 그 분들한테 과연 누가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느냐, 누가 대표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계

속 호소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제가 몇석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없다. 언론이나 국민이 보면 알 것"이라며 "우리는 현역 1석이고 한국당은 7석, 나머지는 민주당이다. 지방선거 이후에 의

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정면승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현역 차출론에 대해서도 "본인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현역 의원 중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없다"며 "현역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시도지사의 경우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

"영남 보수, 한국당이 대표 정치세력이나에 대해 회의감 느껴"

"야권 단일화 아닌 정면승부 옳아"...현역 차출 "본인 뜻 중요"

원 재보궐선거도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대해서는 "통합개혁신당에 같이 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는 후보단일화, 선거연대에 관심 없다고 한다"며 "우리가 그런 얘기를 꺼낼 이유

다"고 선을 그었다.

유 대표는 백의종군 요구에 대해서는 "통합개혁신당 대표 자리에 욕심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다"며 "통합개혁신당 초기에 저와 안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 방법보다 더 통합 개혁신당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답했

뉴스스

與 1당 지위 불안...현역 출마 제한 움직임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 1당 사수 고민에 빠졌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으로 2당인 자유한국당(118석)과 불과 3석 차이다.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 다수가 출마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원내 제1당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국회 관행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1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권과 직권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다. 민주당으로서는 20대 하반기 국회에서도 1당을 유지해 의장직 수성을 노리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누가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현역의원 출마를 자제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 출마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앞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내 의석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집권당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뼈는 분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질중점이 아니라 날 것"이라고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출마해버리면 원내 상황이 위태로워진다"며 "누가 나가도 당선되는 곳은 현역의원들이 자제하는 게 옳다"고 했다. 현재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지가 아닌 곳을 노리는 의원들의 출마 포기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